

브라질, No.2 바이오디젤 공장 준공

Petrobras, 생산능력 5700만리터 ... 총 3곳 건설 1억7000만리터 생산

브라질 정부가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 관리 아래 No.2 바이오디젤 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8월20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북동부 세아라 키샤다 지역에서 No.2 바이오디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키샤다 공장은 5700만리터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아라의 농가에서 재배되는 채유식물을 원료로 이용하게 된다.

Petrobras는 앞서 7월 말에는 북동부 바이아 칸데이아스에 5700만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No.1 공장을 건설한 바 있으며, 조만간 중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몬테카를로스 지역에서 No.3 공장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Petrobras는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3곳을 건설하기 위해 2억9500만헤알(약 1억8000만달러)을 투자했으며,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총 1억7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공장은 바이아, 세아라, 미나스 제라이스의 5만5000여 농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게 돼 농가 소득 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바이오디젤은 에탄올에 이어 제2의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는 현재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채유식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소, 돼지, 닭 등 동물성 지방과 튀김용 기름 찌꺼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개발하고 있다.

Petrobras는 자회사 Petrobras Bio Energy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15억달러를 바이오디젤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브라질은 2008년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해 10억달러의 디젤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 산하 바이오디젤 생산·소비 프로그램(PNPB)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디젤연료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3%로 높이면서 6억달러의 디젤 수입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는 6월부터 전국 주유소 3만5000곳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에서 3%로 높인 B3 디젤 판매를 의무화했다.

브라질은 2008년 초부터 바이오디젤이 2% 혼합된 B2 디젤 판매를 통해 디젤 수입 의존도를 7%에서 4%로 낮추면서 4억1000만달러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2007년 4억리터에 이어 2008년에는 10억리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etrobras가 운영하는 공장을 포함한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25억리터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소비가 늘어나면서 브라질은 2008년에 이태리 및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1>